

# “담금질은 무쇠에 생명넣는 작업”

## 산문박의 10년

대장장이 이은규 씨

쇠망치를 내려치는 소리는 둔탁하기 그지없다. 그러나 이 소리를 들어야 신명이 나는 사람이 있다. 강원도 임계에 사는 이은규씨. 그는 이 땅의 몇 안되는 두드리(대장장이) 가운데 손꼽히는 인물이다. 우선 그는 쇠에 관한 한 모르는 것이 없는 쇠박사다. 어떤 쇠망치라도 망치로 한번 두들겨보면 단단한 강철인지, 아니면 녹철인지를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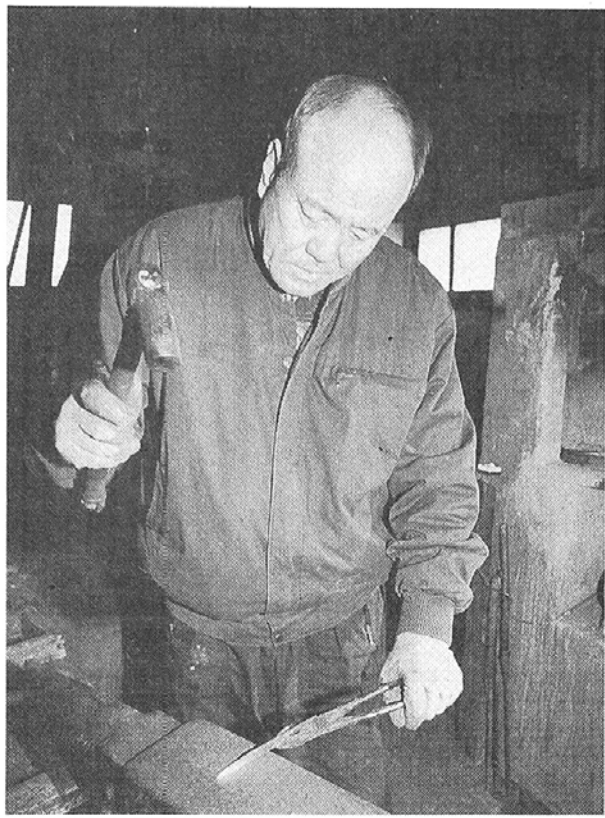
### 망치소리에 절로 신명

“남들은 쇠가 단단하다고 하지. 그렇지만 쇠처럼 여문 것도 없어. 아무리 단단한 것도 숯불에 15분 가량이면 옛처럼 흔들거리고 말아. 그러나 이것으로 모양을 내고 싶은 것은 다 낼 수가 있지. 문제는 쇠도 사람처럼 생명이 있다는 것이야. 성질이 나쁜 것이 있는가 하면 눈물나도록 좋은 것이 있어.” 망치질을 많이 할수록 성질이 좋아

적 구성원이 갖추어져야 한다. 불을 일구는 풀무쟁이, 쇠망치로 쇠덩이를 내리치는 매질꾼, 그리고 형태를 만들고 총괄지휘하는 대장. 이렇게 구씩이 맞추어졌을 때 대장간이 들어간다. 그러나 이씨가 자부하는 것은 대장간의 생명인 담금질의 대가라는 것이다.

담금질. 불에 녹이고 매질하여 모양을 낸 쇠를 물에 넣어 칼날을 단단하게 세우는 작업. 이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대장일의 진수다. 물과 쇠의 온도, 담금하는 시간에 따라 제품의 성질이 결정된다. 때로는 쇠가 너무 강해져서 부서진다. 어떤 때는 성질이 약해지기 도 한다. 제대로 담금질이 된 식도는 7~8년을 써도 칼날이 무디어지지 않는다. 이씨가 만든 식도가 그러하다.

“지금 칼이라고 나오는 것은 걸만 번지르해. 그러나 성질이 약하지. 담금질이 잘못된 것이야. 쇠날이 검붉게 되었을 때 성질이 변하지 않게 물에 적



어. 여행 한번 못해봤어. 그래도 세상돌아가는 것은 손바닥이야. 정선땅은 누구 집 술가락 휘어진 것도 알고 있지.”

교통이 불편한 산골, 발농사로 겨우 먹고사는 아들에게 연장은 생명만큼이나 소중하다. 연장을 손질하려 대장간을 찾으면 큰 마을을 내야 한다. 하루쯤이 걸릴까 때문이다. 할머니손에 이끌려 ‘절을 찾았던 이씨에게 ‘남 못할 일은 하지 말자는 것’이 평생 살아온 원력이다. 이 우직한이 강원도 골짜기 농민들을 허탕치지 않도록 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이씨의 대장간은 35년 동안 단 하루도 문을 닫은 적이 없다.

이씨의 대장간은 불상 손님들로 북적거린다. 이들은 이씨의 망치질을 장단삼아 이 소식 저 소식을 전해준다. 그러나 정선에서 이씨만큼 정보가 빠른 이도 없다. “망치를 한방이라도 더 내리치면 철수록 쇠는 단단해지지. 망치질 많이 했다고 믿지는 것이 없어. 사람은 속일 줄 알아도 쇠는 속일 줄 몰라. 그저 근심하게 쇠덩이 두들기며 살았으니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지.”

탕다닥 탕, 탕다닥 탕탕. 일정한 리듬으로 이씨의 쇠망치소리. 그 소리는 장단과 리듬을 갖춘 아름다운 음악이자 가장 진실된 삶의 소리이다.

임계=이준업 기자

# “천번 두드리고 다듬으면 날 서고 쓸모있어” 정성이 기술... 8살부터 풀무질 대장일 62년

지는 것이 쇠다. 얼마만한 관심과 애정으로 대접느냐에 따라 좋고 나쁜 쇠가 되고 제품이 된다는 것이 이씨의 확신이다.

이씨를 대장장으로 손꼽아주는 또 하나는 그의 이력이다. 그는 자신의 나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주민등록증이 증명하는 나이는 62세. 그러나 태백산에서 땀을 흘린 그는 그에게 8년은 살아있어도 죽은 거나 진배없었다. 당시는 흥역으로 일찍 죽는 아이가 많아 뒤늦게 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이씨가 사람으로 인정받은 것은 8살 무렵. 할아버지 손에 이끌려 풀무쟁이가 되었을 때부터이다. 손으로 풀무를 잡을 수 있게 되자 호적신고를 했다. 따라서 이씨는 호적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대장일을 시작한 유일무이한 사람이다. “대장일은 무당처럼 복치고 추는 것이 맞아야 해. 신명이 나지 않고서는 일을 못해. 제대로 된 복장단에 몸이 으쓱거리지 않는 무당맞듯이 제대로 된 망치질소리에 미적거리는 대장장이야.”

불과 쇠를 다루는 대장일처럼 힘든 일도 없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인

당히 넣어야 해. 얼마동안 어떻게 담금하는지를 제대로 아는 대장은 드물어.” 담금질은 무쇠에 생명을 부여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담금질할 때는 60년 이력을 가진 이씨도 등골이 요연해진다. 모든 신경을 눈, 손끝에 쏟아야 한다. 칼라와 같은 순간의 담금질 여부에 따라 제품의 생명이 판가름나고 만다.

이씨는 매질일을 눈 감고도 한다. 그러나 담금질만은 그렇지 못하다. 물속에 칼날을 넣는 순간 뒤에서 손님이 “어이 여보게” 하고 부르던 한나절 품값을 받지 못하는 사태에 이르고 만다. 제품이 쓸모없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서툰 대장은 이 담금질에서 오히려 물건을 망치기 일쑤다. 이씨가 그러했다. 고집과 자존심으로 풀뚝물쳐진 이씨. 35년전, 아버지가계서 분가하여 임계에 대장간을 차려 놓았을 때였다. 손님이 맡겨놓은 칼을 담금질하다가 도리어 칼을 망쳐버렸다. 손님의 질책은 참을 수 없었다. 그러나 대장장이로서의 자존심은 도저히 삭일 수가 없었다. 끝내 한나절을 화장실에서 목을 놓아 울고 말았던 것이다.

눈발이 좋은 이씨. 그의 실력은 수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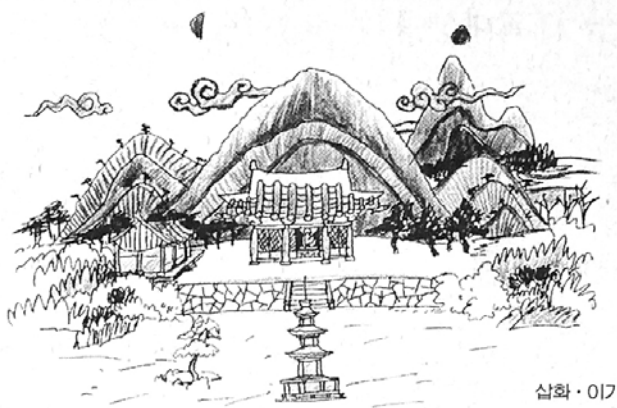
번의 실험을 요구했다. 몇년이 지나고 나서야 불에 달구어진 쇠와 물의 온도, 쌍방의 함수관계를 터득하게 되었다. “오래전 일이지. 하루는 담금질 소문을 듣고 나라에서 최고간다는 목수가 찾아왔어. 자귀를 하나 만들어 주었지. 그후 얼마있다가 그 목수가 왔어. 최고라는 거야. 평생에 그때처럼 기쁜 때가 없었어.”

### ‘남 못할 일 하지말자’

이씨가 만드는 것은 주로 농기구다. 낫 호미 쇠스랑 곡괭이 도끼 쇠칼에 이르기까지 줄잡아 50여종. 강원도 산골농민이 주고객이어서 낫이 가장 인기이다.

쇠덩이를 한방갈랑 잘라 불에 4~5차례 달구고 천번이 넘는 망치질을 해야 낫 하나가 완성된다. 이씨가 만든 낫은 반월형이다. 여너 낫보다는 넓고 두껍고 날의 길이가 짧은편이다. 미끈하게 빠진 낫이지만 아무리 나무를 쳐대도 칼날만은 변함이 없다. 지난해 7천개를 만들었어도 부족할만큼 유명세를 타고 있다.

“난 아직 강릉과 임계를 떠난 일이



삽화·이기선

# 자연의 성품을 직관하자

창의하는 정신은 아름다운 것이다. 사고와 사유는 정신문화를 만들어 내는 힘이다. 모든 종교가 깊은 명상에 잠기도록 수양하는 것은 정신적 세계를 고양하는 길이다. 종교가 가라앉는 문화를 갖지 아니하고 들떠있는 문화를 갖게 한다면 난장이 될 것이다. 고향과 싸움이 뒤엎켜 서로를 이기려고 하는 원소속 속에는 양갈진 이기심이 도사리고 있다.

거룩한 법당안에 들어오면 난장에 있던 고향과 다희의 목소리가 가만히 가라앉고 조용한 마음으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가라앉고 차분하게 둘러진 마음이 발원과 소원이 갖게 된다. 기도가 바로 그 시간에 들어와야 한다. 시장 한복판에서는 기도의 기마가 들어오지 않는다. 아귀다툼의 산술만 부치게 되고, 빈 양철을 두들기게 된다.

산은 모든 소리를 잠재우는 힘을 갖고 있다. 소나무, 잣나무, 밤나무, 물푸레나무, 오리나무, 들굴 나무, 모든 나무가 세상소리를 들이 마셔버리고 고요하고 신선한 공기를 내어 놓는다. 그래서 수도자는 산으로 들어 온다. 신선이라는 글자도 사람이 산에 잘 들어와 일체의 욕심을 버리고 산처럼 사는 모양을 상징한 것이다. 산자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옛 사람들의 슬기가 돋보인다. 이 산에서 나온 문화를 보아라. 천년이나 오래오래 산 나무로 관각한 고려대장경을 보아라. 몇 억 만년 가만히 침묵한 바위들이 새긴 석굴암을 보아라. 이 고려대장경과 석굴암 그리고 종묘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하니 이 얼마나 행복한 나라인가.

우리는 산에서 자라는 모든 생명을 잘 다루고 아끼면

산이 주는 혜택을 받지 않는가. 이 모두가 깊은 명상과 사유에서 비롯된 정신문화이다. 지금은 과학시대라고 한다. 과학시대는 발명의 시대이다. 발명은 자연을 화학반응으로 하는 것이다. 자연은 있는 그대로 손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2의 물질로 변질시켜 유용하게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러나 고려대장경이나 석굴암, 종묘는 자연성을

보아야 한다. 민둥산을 만나면 민둥산에 바람이 쉬어갈 수 있도록 나무를 심어야 한다. 바위만이 있는 산을 만나면 바위벽에다 부처님의 미소를 풍겨보는 그림을 각인해 보아야 한다. 나무도 심지 않고 산에 드는 사람은 흥포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바위산을 보면서 팔만사천의 보살상을 그릴 수 없는 사람은 아반인과 다를바 없다.

우리의 조상들이 산 꼭대기 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름다운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마니산의 기도처, 태백산 지리산 한라산의 하늘터가 바로 산에서 치성하는 마음공부가 아니란가.

우리 나라의 문화유산이 세계에서 기리는 문화가 되었다는 것은 불교인이 자연을 사랑하고 아끼 기우는 마음을 가졌기에 가능한 것이다. 지금은 우리의 산하가 과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렇게 파괴되고 있다. 개발이

없을 정도 로 잘기 고 기 찿기 고 인간의 손때가 약간 묻어나게 하는 예술인 것이다. 사람은 문화와 예술을 창 의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능력은 산에서 익혀온 승결로 드러내는 것이다. 나무의 결이나 물의 맥을 찾아 내어 나무를 상하지 않게 하고 물의 맥이 끊어지지 않게 조아내는 것이 예술의 힘이다. 이러한 예술의 힘은 자연의 성품을 직관하는 슬기로 드러내기에 가능한 것이다. 슬기가 없는 사람은 재목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또한 재질이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아무 것도 창출해 내지 못한다.

해가 바뀌는 선달이다. 우리는 얼마나 산에서 살아온 사람이 되었는가를 반성해

〈동국대 불교대학원장〉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56

사유(思惟)

## ‘개발’로 포장된 문화훼손 안돼

파헤쳐져가고 있다. 자연의 응징을 기대하면서 하는지 모르지만 난장에서 제 목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이익추구의 상술을 외치대고 있는 것이다. 목인 호객으로 품살을 겪을 것이다.

해가 바뀌는 선달이다. 우리는 얼마나 산에서 살아온 사람이 되었는가를 반성해

세계일류 위대한 유산이요 민족의 자존심인 국보 팔만대장경 번역본

# 한글 대장경



- 현재 172권 간행 보급중
- 98년까지 250권 완역예정
- ▶ 정가 1권 12,000원
- ▶ 1권당 700쪽 내외 호화양장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동국대학교 동국역경원

전화: (02) 272-2398  
(02) 269-2972  
FAX: 278-4069

한글팔만대장경 목록			
01. 장아함경	15. 불보행집경 1-2	51. 대방등대집경 1-2	68. 중론백론
02. 중앙함경 1-3	17. 찬집백연경	53. 대매경 (외)	69. 현양 성교론 (외)
05. 집아함경 1-3	18. 현우경 (외)	54. 아차말보살경 (외)	70. 대승기신론 소별기
08. 벌역집아함경	19. 출요경 (외)	55. 대집회정법경 (외)	71. 부휴당집 (외)
09. 중일아함경 1-2	20. 법구경 (외)	56. 현경경 (외)	72. 선문염송 1-5
11. 대루탄경 (외)	21. 대반야경 1-20	57. 유마경 (외)	77. 조당집 1-2
12. 불반니원경 (외)	41. 법화경	58. 입능가경 (외)	79. 전등록 1-3
13. 아라한구덕경	42. 화엄경(60권본) 1-3	59. 정법 염처경 1-3	82. 무용당집 (외)
14. 비화경 (외)	45. 화엄경(80권본) 1-3	62. 사문율 1-3	83. 백곡집, 월저당집
	48. 화엄경(40권본)	65. 선견율비바사	84. 법원주림 1-5
	49. 열반경 1-2	66. 구사론 1-2	89. 경율이상 1-2
			91. 본생경(자아타카) 1-5
			96. 대보적경 1-5
			101. 대지도론 1-5
			106. 중경록 1-4
			110. 유가사지론 1-4
			114. 불성론
			115. 아비달마집이론주론
			116. 아비달마시신주론외
			117. 아비달마품류주론외
			118. 아비달마대비론사 1-8
			126. 십승율 1-3
			129. 근본살일체유류비나야 1-2
			131. 정법화경 (외)
			132. 예념미타도량참법
			133. 대비로자나상불가사경
			134. 기세본본경
			135. 고려국신조대장교정별록
			136. 해심밀경소 1-2
			138. 해동고승전 (외)
			139. 대각국사문집의 7
			140. 범망경술기 (외)
			141. 화엄경탐현기 1-4
			145. 근본살일체유류비나야 1-2
			147. 십주비바사론 (외)
			148. 부자함집경 (외)
			149. 무량정장평등각경 (외)
			150. 대승보살정법경 (외)
			151. 니야아빈두 (외)
			152. 실상론
			153. 지혜와 지혜의 말씀 (외)
			154. 대승보살심지관경 (외)
			155. 방광대장경 (외)
			156. 과거현재인과경 (외)
			157. 문수사리문경 (외)
			158. 무소유보살경 (외)
			159. 금색동자인연경 (외)
			160. 보살영락경 (외)
			161. 심밀해탈경 (외)
			162. 제법집요경 (외)
			163. 십력경 (외)
			164. 보우경 (외)
			165. 본사경 (외)
			166. 보조국사집
			167. 니옹화상집 (외)
			168. 원감국사집 (외)
			169. 소오당집 (외)
			170. 반니원경 (외)
			171. 불보행경 (외)
			172. 불퇴전법문경 (외)